

장흥군, 사무관 승진인사 불공정 논란

행정공로 등 성과 적은 2명 파격 승진에 술령

“근무평정 기준 2년서 4년으로 늘려야” 여론도

장흥군정 직원들 사이에 ‘기초자치단체의 꽃’인 5급(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선 6기들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편한 면사무소 등 외청근무로 승진하위권에 있던 일부 직원이 인사평가에서 연이어 고득점을 받으며 상위권 선배들을 제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직원의 발탁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11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이 단행한 행정직 5급 승진자 대상자 선발(2명)과정에서 K씨와 S씨 등 2명이 ‘발탁인사’를 명분으로 그동안 보청 격무부서

등을 돌며 10년 이상 꾸준히 근무평정을 해온 다경력자 선배들을 몰리치고, 파격적으로 승진해 공직사회가 술령이고 있다.

K씨와 S씨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편한 읍·면에서 근무한 탓에 승진후보자 순위에서 하위권(30위권)에 머물러 있었으나, 민선 6기 들어 2년동안 인사평정에서 고득점을 받으며 상위권으로 뛰어오르는 등 승진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발탁인사의 주요인 중 하나인 행정공로 등 별다른 실적도 없는데다, S씨는 이른바 5급 승진을 위한 필수 격무부서로 꼽히는 ‘기획, 총무, 예산’ 부서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직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S씨는 현 장흥군수와 고교동문 친구 사이로 알려지면서 입

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장흥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인사전횡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 승진인사 기준은 근무평정 점수와 경력점수를 감안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매기고, 4~7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승진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은 사실상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5급 승진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최근 2년 기준(연 2회)으로 정기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할 경우 2년 동안 점수에 관계없이 2년간 점수만 잘 받으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국 민선 6기 전반기 2년동안 근무평정을 잘 받은 K씨와 S씨의 사례처럼 기존 근무기록이나 점수와는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불공정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임용 및 승진에 따른 인사시스템(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마저도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승진을 심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등을 통해 독립적 기능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사무관 승진심사시 근무기간도 ‘최소 4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명을 요구한 장흥군의 한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성과가 별로더라도, 자치단체장에게 2년간 인사평정을 잘 받으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현 인사제도”라면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발탁승진을 했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외청에서 편한 곳만 돌다가 승진 무렵이면 잠시 본청으로 들어와 승진을 하는 등의 사례를 볼 때마다 근무의욕이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충=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mkim@



고창군, 미꾸라지 치어 31만 마리 방류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복원 효과 특목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산 어종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선운산도립공원 인근 주진천에서 새끼 미꾸라지 31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된 미꾸라지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생

산했으며 각종 질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종묘다.

고창군 관계자는 26일 “2004년부터 하천과 저수지에 뱀장어, 참계, 붕어, 동자개 등 토산 어종 방류사업을 벌여왔다”며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식기자 ghs@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광양시, 51억 투입 연내 완공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 일원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목재문화체험장은 총 사업비 51억6900만원(국비 41억 3500만원, 시비 10억3400만원)을 들여 4800㎡ 부지에 건축면적 1333㎡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신축된다.

목재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예 체험실, 놀이 체험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5월 작공해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실 및 전시실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재미있는 놀이터와 생활용품 및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의 역할 등을 맡게 된다.

광양시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완공되면 프로그램과 전시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체험 등을 위한 기계장비 등을 설치해 내년 7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정현주 광양시 산림과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을 기존 백운산자연휴양림은 물론 오도캠핑장, 치유의 숲 등과 연계해 종합 산림문화휴양터다운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에코시티 내 코스트코 입점 찬반 갈등 심화

전주시민단체 ‘중소상인 생존 위협’ vs 주민 ‘입점 허용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옛 35사단 부지)내 대형할인점 입점 여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코스트코의 입점’을 요구하는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자들에 맞서 지역 시민단체가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회원제 창고형 대형할인점 업체로 현재 전국에 12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부지에 코스트코의 입점 여부를 놓고 고

심하고 있다”면서 “만약 코스트코의 입점을 허용한다면 전주는 물론 인근 익산과 군산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대형소형몰을 염두에 둔 개발사업은 자가 상상을 원하는 사업자와 입주자, 대기업 유통회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배양할 기회도 잃고 있다”며 “전주시장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입점을 허용한다면 (비난의) 책임은 고스란히 김 시장에게 돌아갈 것”고 지적했다.

주작산 휴양림

‘숲 체험’ 인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강진지역 어린이 집 유아들이 최근 주작산 휴양림에서 ‘유아 숲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강진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작산 휴양림에서 유아 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들어 600여명의 유아들이 다녀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모교 신입생에 교복비 전액 지원

홍승희 재림장학재단 이사장

재림장학재단이 지역 인재육성을 목표로 학다리중학교 1학년 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함평 학다리중학교(교장 문중기)에 따르면 최근 학다리중학교 출신 홍승희 재림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본교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여를 시중 교복비를 지원했다. 또 학생 5명에게는 겨울 시중 교육비를 추가 지급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학다리중학교는 함평 주민 모두의 정성과 마음으로 세워진 학교로, 저 역시 학생시절 선배들의 많



은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워왔다”면서 “비록 작은 보탬이지만 학다리중학교 후배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출신인 홍승희 이사장은 학다리중·고를 졸업한 동문으로 어머니인 고 박재림 여사의 ‘이웃사랑’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재림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k

무안군의회 의장에 이동진 의원

부의장 김원중 의원

무안군의회가 제7대 후반기 의정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무안군의회는 “최근 231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정단 부지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협 하나마트의 입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연휴상



“상임위와 분회의에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상임위원장은 김인숙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정은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각각 선출됐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건축가능 매3억3천만원
- 나주시 송촌동 신축주택 대지596㎡ 건물85㎡ 남향 텃밭있음 동신대인근 매2억1천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2천
-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농지 / 투자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항고 매 8억4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통정리 담 7,966㎡ 4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9억원
- 나주시 산포면 신례리 전 배과수원 7,934㎡ 혁신도시 근거리 투자 유망 매 4억8천만원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점 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22억원
- 나주시 노안면 담 4,000㎡ 2차선도로점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적합 매 5억2천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전 24,795㎡ 2차선도로변 교차로 생산관리 지역 전원주택지 적합 매 18억원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사무소 담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 물가공적합 매 2억 2천만원
-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 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흥군 양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600여㎡ 상교부근 1억원
- 신안군 지도읍 바닷가 관리 지역 전 1362㎡ 농장·귀농생활 적합 1억
- 나주시 다도면 관리지역 700여평 위치 좋음 평당 26만원

투자·매도·교환

- 차고지 공장 창고 적합 관산구 송학동 우스호텔 부근 1446㎡ 1억6천
- 상가주택 월산동 동신대 병원 뒤 대지 187㎡ 건물 170㎡ 1억4천
- 경관이 최고 좋은 나주시 다도면 국도점 잡종지 5451㎡ 타운하우스식 별장·사할·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5944㎡ 매도 9억9천
- 서구 송촌동 2중주거지 1651㎡ 빌라등 조합 은행 14억 평당 350만원
- 무안군 광문면 면사무소 인근 국도점 1312㎡ 은행 2500 매도 6천
- 광안구 송학동 관리지역 19621㎡ 노시시설 적합 평당 35만원 20억8천
- 월산동 다가구 주택 대지 206㎡ 6세대 매도 4억원
- 무안군 해제면 국도점 주거지 1347㎡ 은행 1억 매도 2억원
- 해남군 산포면 소재지 주거지 866㎡ 공시지가 이하 매도 1억6천
- 월산동 무진중 건너편 소방도로 대지148㎡ 상가주택적합 1억원
- 남구 양과동 그린벨트와 대지 9958㎡ 대지1013㎡ 포함 15억
- 월산동 2차선 도로 주주거 309㎡ 건물 신축용 은행 1억5천 매도 3억4천
- 광안구 우산동 도로점 생산지 2147㎡ 투지에 최저 4억5천

상가건물

- 남구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36㎡ 3층건물 198㎡ 매도 2억4천
- 광주역 앞 모텔·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4천
- 유동 일몰건물 대지 238㎡ 건물 152평 월률5, 투률7 인접 매도 7억
- 전대 정문부근 신축 월률·상가 대지 166㎡ 건물 344㎡ 은행 1억5천 보증금 5천에 월 373 만원임 6억9천
- 쌍용의 대지 298㎡ 건물 567㎡ 월률2 투률10 인접 매도 8억6천
- 담양군 남면 광주에서 화순 온천 가는 길 천평과 시흥동은 팬션 땅 1516㎡ 건물 335㎡ 은퇴생활 적합 객실8개 은행3억선 매도4억5천
- 유동 리모델링 된 모텔 토지 422㎡ 객실 28개 6층은 실립집, 심야 보일러 은행 5억 5천 땅과 교환가능 8억3천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분양 58평 사무실적합 1억원
- 광안시 중동사태프리카 1층 22평 은행 2억7천 교환가능 3억5천
- 광안구 남산동(보령동) 대지 1370㎡ 은행 3억7천 매도 교환 5억2천
- 대의동 동부경찰서 부근 대지 235㎡ 건물295평 17억4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레가 18억원
- 화순군 남면 사평리 대지218평 전방종용 건축가능 투자까지 ▶ 감정가 2천6백만원 최저가 2천6백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원룸 건물133평 토지74평 코너위치 187구 위치좋은 ▶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3억7천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북구 흥동동 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222평 위치, 건물상대 최상 ▶ 감정가 12억원 최저가 12억원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천만원 최저가 5천3백만원
- 북구 오지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정가 3억5백만원 최저가 2억2천만원
- 전남 보성군 임로잇은 편백및 산나무식재용 투자가치우수 ▶ 감정가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정가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 일반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 매매 - 협의
-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 주인직매 H.010-8829-6876